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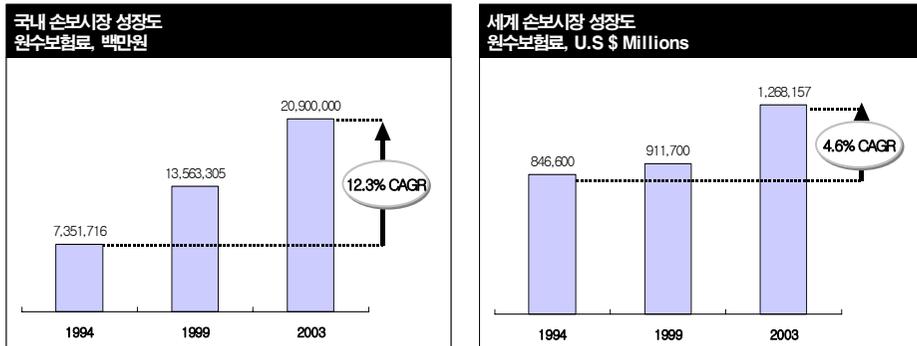
II. 국내 손해보험시장의 성장 동인과 수익구조 분석

1. 국내 손해보험시장 현황

가. 세계속의 국내 손해보험 산업

국내 손해보험산업은 외형위주의 성장전략으로 인해 양적인 측면에서 경제규모(GDP 기준 세계 10위, 2003년 현재)에 비해 상당히 신장되었다. 1994년에서 2003년까지 10년간 성장추이를 살펴보면, 국내 손해보험 산업은 연평균 12.3%(CAGR)성장을 하여 세계 손해보험시장의 성장률 4.6%보다 3배 가까운 성장을 시현하고 있다. 보험종목별로는 장기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일반보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II-1> 국내 및 세계 손보시장 성장 추이



자료: Swiss Re, *sigma*, No 3/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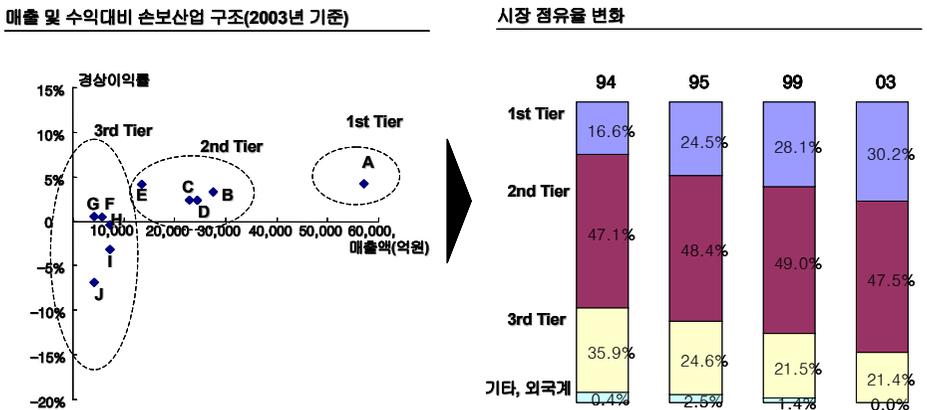
또한 수입보험료 기준 손해보험은 세계 11위(2003년 현재)이며, 보험침투율 기준으로는 세계 손해보험 25위(2003년 현재)로서, 선진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는 최근 낮아지고 있는 성장률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손해보험시장의 성장여력은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국내보험시장

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지속적인 증대가 예상되나 성장률은 매우 둔화될 것이며, 대형 보험회사들의 경우 현재 수입보험료 및 자산규모가 세계적인 글로벌 보험회사에 비하면 1/10~1/20 수준에 불과한 것이어서 글로벌 경쟁을 위해서는 대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나. 국내 손해보험시장 구조

국내 손해보험 시장구조는 삼성을 선두로 하여 현대, 동부, LG, 동양 등의 대형사 그룹, 제일, 신동아, 대한, 쌍용, 그린 등의 중소형사 그룹과 외국계 보험회사, 교보자동차와 같은 단종사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시장은 선두 회사의 독주 속에 시장이 고착화되고 있고 회사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이다. 1위사의 지속적인 리더십 확보가 다른 대형사 그룹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고 중소형사 그룹 간의 격차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림 11-2> 국내 손해보험시장 구조



한 예로 1994년의 경우 1위 회사의 시장점유율(16.6%)이 중소기업 그룹의 시장점유율(35.9%)에 비해 약 20%p 낮은 수준이었으나, FY2003 기준에서는 오히려 1위사의 시장점유율(30.2%)이 중소기업 그룹의 시장점유율(21.4%)보다 8.8%p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대형사 그룹의 시장점유율은 FY1994 63.7%에서 FY2003 77.7%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익측면에서 살펴보면 과거 10년간 평균 중소기업 그룹의 손해율은 82.4%, 대형사 그룹은 80.3%를 기록하고 있다. 사업비율에서도 대형사 그룹 24.6%, 그리고 중소기업 그룹은 26.6%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영업이익 지표인 합산비율은 대형사 그룹 104.9%, 중소기업 그룹이 109.0%로서 차별화되고 있다. 한편 투자이익측면에서도 각 그룹내 회사들은 실적차이를 보이고 있어 결국 보험영업과 투자영업 결과를 총 집결한 당기순이익을 분석해 보면, 대형사 그룹 평균이 423억원의 이익을 시현하는 데 비해 중소기업 그룹은 평균 74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표 II-1> 손해보험회사의 주요지표('94-'03 평균)

(단위 : %, 백만원)

구분	손해율	사업비율	합산비율	보험영업이익	투자이익	당기순이익
대형사	80.3	24.6	104.9	-114,406	173,209	42,283
중소형사	82.4	26.6	109.0	-44,838	38,382	-7,399
10사평균	81.3	25.6	106.9	-79,622	105,795	17,442

보험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 현황을 보면, FY2003 현재 중소기업 그룹은 5,067명이며 대형사 그룹의 평균은 2,740명이고, 설계사는 각각 11,013명, 9,797명이며, 대리점은 각각 6,552개, 8,036개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 수입보험료나 당기순이익에 비하여 중소기업 그룹의 인력

비효율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한 예로 중소기업 그룹은 1위사에 비하여 수입보험료는 적는데 전체 임직원수는 오히려 1위사에 비하여 많고, 설계사와 대리점의 수도 비슷한 현상이어서 중소기업 그룹의 생산성 수준은 낮은 상태라고 분석된다.

다. 국내 손해보험회사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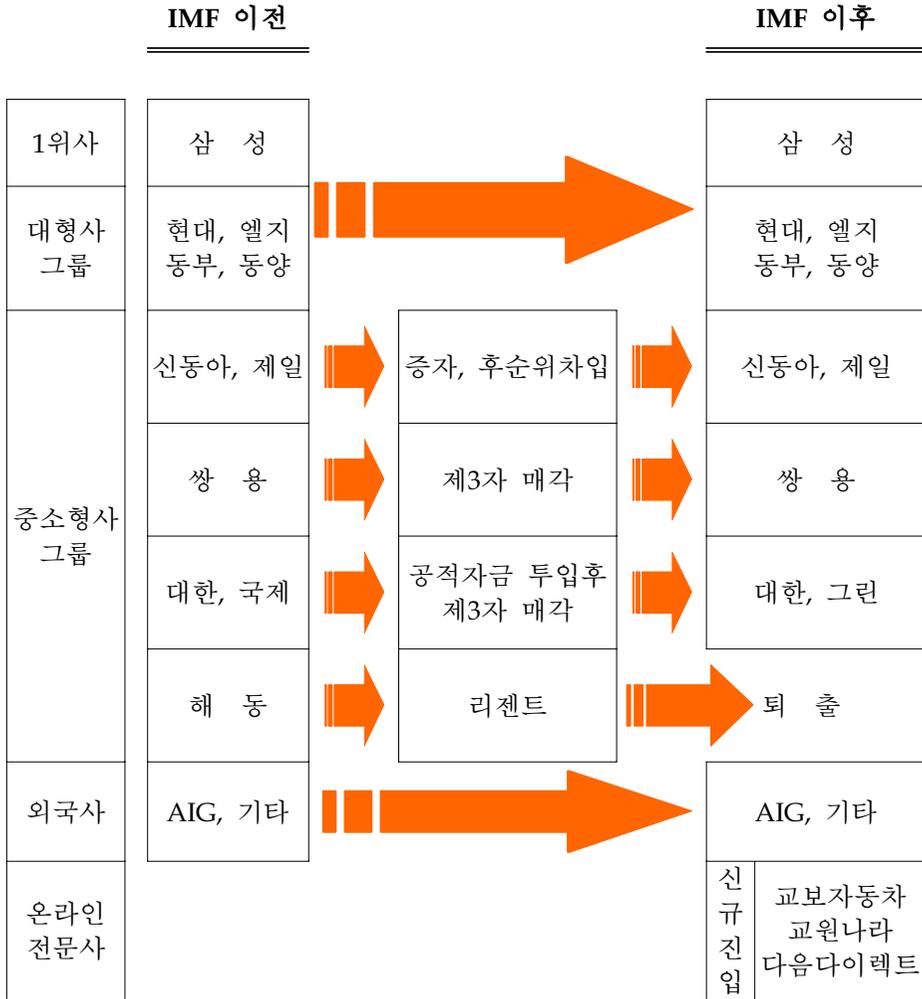
1) 손해보험산업 구조조정 내역

IMF 외환위기 이전 업계 최하위였던 해동화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후 리젠트그룹으로 인수되었으나, 회생하지 못하고 상위 5개사로 계약을 이전한 후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IMF 외환위기 직후 지급여력비율의 급락으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대한화재와 국제화재(현 그린화재)가 공적자금 투입과정을 거쳐 제3자에게 공개 매각됨으로써 손해보험산업의 1차 구조조정은 마무리되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등, 주식시장의 붕괴 등으로 큰 폭의 손실을 입은 일부 손해보험회사는 자본금 증자 및 후순위 차입 등을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조정하였다.

2) 손해보험산업 신규 진입자

교보생명이 자회사로 교보자동차보험사를 설립하여 온라인 자동차보험시장으로 진출하면서 온라인 보험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최근 인터넷 포탈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LG화재와 합작으로 다음다이렉트사를 설립하여 자동차보험 온라인시장으로 진출하였다. 이미 시장에 진출한 교원나라를 필두로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보험 전문사의 설립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는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시장 전 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1-3> 국내 손해보험회사 변동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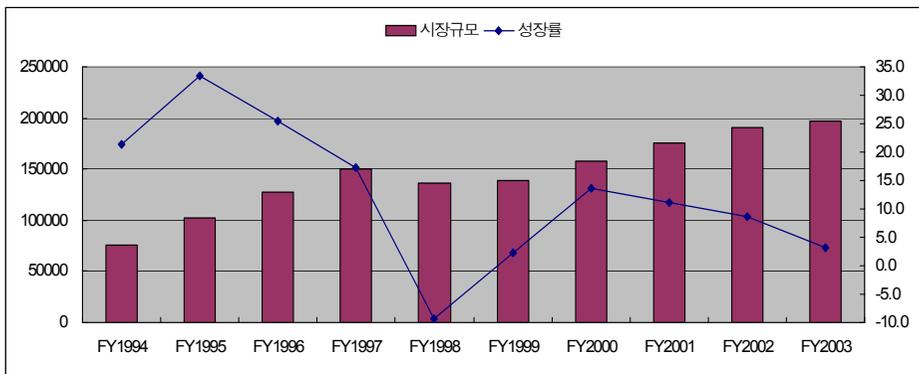
2. 국내 손해보험시장의 성장 동인

가. 손해보험산업 성장 추이

손해보험산업의 시장규모는 FY1994 8조 3,130억원 대비 FY2003 20조 8,900억원으로 10년 동안 2.5배 수준으로 꾸준히 성장하였는데, IMF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II- 4> 최근 10년간 손해보험산업 성장 추이

(단위 : 억원,%)



나. 손해보험산업의 성장 핵심 요인

1) 경제성장률

손해보험 산업의 성장 동인은 경제성장률로 판단되며, IMF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할 경우 GDP 증가율을 상회하는 성장률을 시현하였으나, 최근에는 GDP 성장률을 하회할 정도로 성장속도가 현저히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2> 최근 10년간 경제성장률과 손해보험산업 성장률

(단위 : %)

구 분	1994 ~ 1998						1999 ~ 2003						10년 평균
	1994	1995	1996	1997	1998	평균	1999	2000	2001	2002	2003	평균	
경제성장률	17.0	17.2	12.5	9.5	△1.4	11.0	9.4	9.3	7.5	10.0	5.4	8.3	9.6
손보산업성장률	21.3	33.5	25.4	17.3	△9.2	17.6	2.3	13.7	11.2	8.6	3.2	7.5	12.7

2) 금리 환경

손해보험산업 성장의 주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 장기보험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고금리환경 하에서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였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에 의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이는 손해보험산업 저성장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표 II-6> 참조).

3) 마케팅 능력

큰 폭으로 증가되던 모집조직이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각 보험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FY1995 수준으로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침투율은 IMF 외환위기 직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모집조직의 슬림화 및 전문화를 통해 손해보험산업의 마케팅 능력이 현저히 제고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되던 보험침투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상승한 뒤 소폭 감소 추세로 전환된 것은 국내 보험시장규모가 성숙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표 II-3> 최근 10년간 모집조직과 보험침투율의 추이

(단위 : 천명,%)

구 분	1994 ~ 1998						1999 ~ 2003						10년 평균
	1994	1995	1996	1997	1998	평균	1999	2000	2001	2002	2003	평균	
모집조직	93	105	155	153	136	128	134	120	107	102	106	114	121
보험침투율	2.36	2.70	3.05	3.30	3.06	2.93	2.88	3.03	3.19	3.20	3.13	3.10	3.03

3. 보험종목별 성장 동인

가. 일반보험

일반보험의 경우 9.11 테러 등 국제정세 영향에 따른 해외 재보험시장 악화, 가격자유화에 따른 보험료 경쟁 심화, 손해보험산업 관련 제도 변경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연도별로 세부 보험종목별 성장 추이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화재보험, 적하보험 및 선박보험의 경우 지난 10년간 평균성장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며, 이에 반해 특종보험의 평균성장률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반보험의 성장 동인은 종합보험, 배상책임보험 및 상해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특종보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MF 외환위기 이전 특종보험의 성장 동인은 기업보험의 전위험담보에 대한 니즈확대로 화재보험 등 단일담보 상품에서 재산종합보험 등과 같은 전위험담보 상품으로 성장의 축이 이동하였던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화재보험은 지속적인 저성장 추세로 전환된 반면, 특종보험 시장은 더욱 확대되었다. 1995년 9월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SOC 등에 대한 조달청 발주공사의 건설공사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특종보험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게 되었다. IMF 외환위기 이후 특종보험의 성장 동인은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제기준에 맞는 기업 관련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임원배상책임보

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배상책임보험의 영역이 확대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의약분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악화로 의료비 본인 부담분이 증가하면서 의료비를 담보하는 개인 및 단체상해보험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러한 성장 동인은 향후 지속적으로 일반보험의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4> 최근 10년간 일반보험 성장률 추이

(단위 : %)

구 분	1994 ~ 1998						1999 ~ 2003						10년 평균
	1994	1995	1996	1997	1998	평균	1999	2000	2001	2002	2003	평균	
화 재	9.8	10.2	-5.4	-9.8	-14.9	-2.0	-3.2	3.9	10.0	6.0	-2.3	2.9	0.4
적 하	33.4	-7.3	-3.8	-16.3	-18.3	-2.5	11.8	4.4	-2.4	13.4	3.9	6.2	1.9
선 박	-0.2	5.2	-4.1	6.9	-6.4	0.3	-17.8	-5.2	38.4	-0.3	11.4	5.3	2.8
특 종	28.0	30.9	19.1	20.6	9.1	21.5	7.4	9.0	28.6	18.6	0.8	12.9	17.2
합 계	19.4	17.9	6.6	7.0	-0.2	9.5	3.7	6.7	23.5	15.1	1.3	10.1	9.8

나.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시장규모는 최근 10년동안 연평균 9.9%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성장속도는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 전반의 저성장 및 불황에 따라 자동차 등록대수로 표현되는 자동차 내수시장의 침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IMF 외환위기 이후 대형 법인대리점의 증가 및 저가형 직판 온라인 상품의 등장으로 시장경쟁구도가 강화되면서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한 저가정책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1) 자동차산업 관련 내수시장 성장

자동차보험 시장규모는 자동차산업 관련 내수시장의 성장률을 나타내는 지표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연평균 8.9%)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IMF 외환위기 이후 가격자유화에 의한 요율인하, 저가형 직판 온라인 상품의 등장, 보험료 인하효과를 수반하는 특약상품의 출시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2) 저가정책 확산

IMF 외환위기 이후 판매채널 다변화에 따라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저가격정책이 확산됨에 따라 대형사들도 저가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가격 경쟁구도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직판자동차보험사의 등장은 기존 오프라인의 저가격정책을 더욱 심화시킴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다. 최근 1인 한정특약 및 부부한정특약 등 보험료 할인형 특약상품 출시로 이러한 저성장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5> 최근 10년간 자동차보험 성장률 추이

(단위 : %)

구 분	1994 ~ 1998						1999 ~ 2003						10년 평균	
	1994	1995	1996	1997	1998	평균	1999	2000	2001	2002	2003	평균		
등록대수 증가율	18.0	14.4	12.8	9.0	0.5	10.9	6.6	8.0	7.1	8.0	4.6	6.9	8.9	
자동차 보험 성장률	책임	68.9	22.9	43.0	28.2	-14.1	29.8	-3.5	11.0	18.6	1.2	-1.3	5.2	17.5
	임의	12.1	23.8	11.7	-10.4	-14.8	4.5	10.8	21.2	12.5	9.0	1.2	11.0	7.7
	합계	23.6	23.6	20.4	2.4	-14.5	11.1	4.9	17.3	14.7	6.1	0.3	8.7	9.9

다. 장기손해보험

장기손해보험은 금융시장의 고금리 환경과 관련한 저축성 일시납 신계약의 유입으로 IMF 외환위기 이전에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경제 전반의 저성장 추세 및 지속적인 금리 하향 안정화에 따라 장기보험의 상품판매전략이 보장성 상품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신계약 규모 및 계속보험료 성장률은 IMF 외환위기 이전보다 크게 낮아지고 있다.

<표 II-6> 최근 10년간 금리추이와 장기보험 성장률

(단위 : %)

구 분	1994 ~ 1998						1999 ~ 2003						10개년 평균		
	1994	1995	1996	1997	1998	평균	1999	2000	2001	2002	2003	평균			
1년만기 정기예금	10.0	10.0	9.0	10.6	13.4	10.6	7.1	7.1	5.5	4.7	4.2	5.7	8.1		
3년만기 회사채	12.92	13.79	11.87	13.39	15.10	13.41	8.86	9.35	7.05	6.56	5.43	7.45	10.43		
3년만기 국고채		13.39	11.84	12.26	12.94	12.61	7.69	8.30	5.68	5.78	4.55	6.40	9.16		
장기 보험 성장률	신														
	계	전기납	-49.1	10.0	39.4	30.6	7.8	7.7	-15.3	-4.6	-17.8	-3.2	1.5	-7.9	-0.1
	일시납	65.6	217.4	-5.2	92.9	-20.5	70.0	-63.5	64.8	-89.6	-30.8	32.6	-17.3	29.3	
	소계	-24.6	107.3	7.3	70.1	-12.5	29.5	-46.8	26.5	-59.8	-7.4	5.0	-16.5	7.2	
	계	속	34.8	50.1	48.4	30.3	-5.1	31.7	11.6	11.1	14.4	10.0	6.4	10.7	23.6
합	계	18.4	60.2	39.0	37.3	△6.7	29.6	△0.4	12.8	5.3	9.1	6.4	6.5	18.1	

4. 수익구조 분석

가. 수익성 결정요인

1) 수익구조

손해보험산업의 수익성은 보험영업손익과 투자영업손익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손해보험산업의 특성상 보험영업부문의 손실을 투자영업부문의 이익으로 보전하여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결정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보험영업부문은 정책실행의 결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반면, 투자영업부문은 결과가 즉시 나타남에 따라 FY2000 이후에는 손해보험의 수익구조 결정요인 중 투자영업 부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I-7> 손해보험산업의 수익구조 변동 추이

(단위 : 10억원)

구 분	1994 ~ 1998						1999 ~ 2003						10개년 평균
	1994	1995	1996	1997	1998	평균	1999	2000	2001	2002	2003	평균	
보험영업이익	-689	-582	-856	-1,037	-596	-752	-1,389	-1,264	-571	-388	-694	-861	-807
투자영업이익	602	696	987	1,101	965	870	1,511	709	1,541	1,113	1,343	1,243	1,057
경상이익	-86	110	132	83	365	121	201	-626	1,008	667	553	361	241
기타손익	0.7	58	-25	-0.5	-47	-3	-11	7	88	-10	-0.2	15	6
세전 당기순이익	-85	168	107	83	318	118	190	-620	1,096	657	553	375	247

2) 보험영업부문

합산비율은 보험영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손해율과 순사업비율을 합한 수치이며, 100%를 기준으로 손익분기점을 판단할 수 있다. 업계 전체적으로 과거 10개년 평균은 105.5%로서 지속적으로 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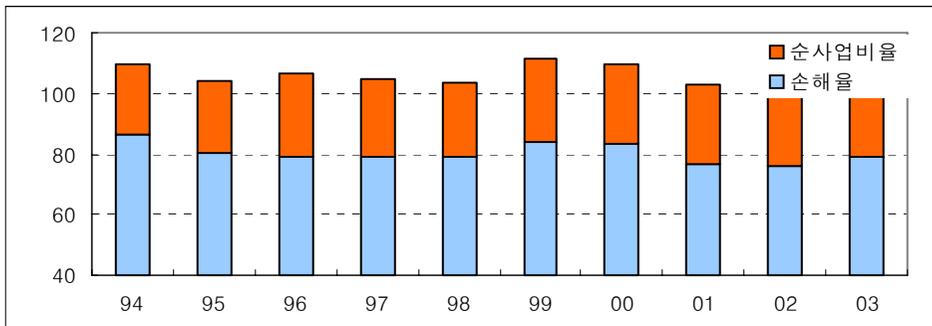
을 시현하고 있는 바, 이는 손해보험산업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모든 손해보험회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하는 상황이다.

<표 II-8> 보험영업손익 변동 추이

(단위 : 10억원, %)

구 분	1994 ~ 1998						1999 ~ 2003						10개년 평균
	1994	1995	1996	1997	1998	평균	1999	2000	2001	2002	2003	평균	
경과보험료	6,724	8,799	11,183	13,668	12,353	10,545	11,872	13,278	14,632	16,058	15,350	14,238	12,392
발생손해액	5,829	7,091	8,838	10,787	9,745	8,458	9,950	11,048	11,259	12,170	12,157	11,317	9,887
손해율	86.7	80.6	79.0	78.9	78.9	80.2	83.8	83.2	76.9	75.8	79.2	79.5	79.8
순사업비	1,550	2,078	3,089	3,533	3,047	2,660	3,256	3,475	3,830	4,160	3,771	3,699	3,179
순사업비율	23.1	23.6	27.6	25.9	24.7	25.2	27.4	26.2	26.2	25.9	24.6	26.0	25.7
비상위험준비금	34	211	111	385	158	180	54	19	114	115	116	84	132
보험영업이익	-689	-582	-856	-1,037	-596	-752	-1,389	-1,264	-571	-388	-694	-861	-807
합산비율	109.7	104.2	106.7	104.8	103.5	105.4	111.2	109.4	103.1	101.7	103.8	105.5	105.5

<그림 II-5> 보험영업손익 변동 추이



연도별로는 FY1999에 111.2%로서 최고점을 형성한 이후 보험료 인상 및 영업비 통제 등을 통해 하향추세로 전환되었으며, FY2003에는

사업비율 안정화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급등 및 장기보험의 제도변경으로 인하여 합산비율이 상승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된다.

3) 투자영업이익부문

투자영업이익부문은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산업전반의 저성장 환경으로 전환, 저금리 기조의 지속, 시가평가제도 도입(1998),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 시행(2000), 금융감독 평가기준(CAMEL) 강화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FY1998까지 손보업계의 투자이익률은 평균 7.5%에서 FY1999 이후 5.2%로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FY2000 이후에는 저금리추세의 가속화, 고유가, 9.11 테러 등 국제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관련한 주식시장의 불안정 및 산업경기 회복지연 등 전반적인 불확실성의 증가에 따라 큰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손해보험업계는 안정적인 수익원 관리 및 리스크 회피를 위해 고수익 위험자산에서 저수익 안전자산으로 운용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추세이다.

<표 II-9> 투자영업이익 변동 추이

(단위 : 10억원, %)

구 분	1994 ~ 1998						1999 ~ 2003						10개년 평균
	1994	1995	1996	1997	1998	평균	1999	2000	2001	2002	2003	평균	
KOSPI	97,1	91,0	77,2	59,5	42,9	73,5	88,4	62,8	64,1	68,3	75,6	71,8	72,7
등락율		-6.4	-15.1	-23.0	-27.9	-18.1	106.2	-29.0	2.1	6.6	10.7	19.3	-1.5
3년만기국고채		1.3	1.2	1.2	1.3	1.3	0.8	0.8	0.6	0.6	0.5	0.6	0.9
투자영업이익	602	696	987	1,101	965	870	1,511	709	1,541	1,113	1,343	1,243	1,057
이익률	9.2	7.6	8.3	7.7	6.1	7.5	8.1	3.7	6.6	4.3	4.1	5.2	6.0

나. 보험종목별 수익성 분석

1) 일반보험

FY1997~FY2000 기간은 IMF 외환위기로 인한 거대기업의 도산 등으로 보증수재보험(특종보험)의 손실이 크게 나타났던 시기이며, 이를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일반보험의 손해율은 5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창출에 일반손해보험은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10> 일반보험 영업손익 변동 추이

(단위 : 10억원, %)

구 분	1994 ~ 1998						1999 ~ 2003						10개년	
	1994	1995	1996	1997	1998	평균	1999	2000	2001	2002	2003	평균	평균	
경과보험료	619	706	757	778	732	718	699	706	748	874	848	775	747	
발생손해액	261	299	372	490	378	360	417	422	384	434	407	413	386	
손해율	42.2	42.3	49.1	63.0	51.6	50.1	59.6	59.8	51.3	49.6	48.0	53.3	51.7	
순사업비	182	246	289	357	344	284	246	202	193	222	215	215	250	
순사업비율	29.5	34.9	38.1	45.9	47.0	39.5	35.1	28.6	25.6	25.4	25.4	27.8	33.4	
보험영업이익	175	161	96	-70	10	75	37	82	173	218	226	147	111	
합산비율	71.7	77.2	87.3	108.9	98.6	89.6	94.8	88.3	76.9	75.1	73.4	81.0	85.1	

2) 자동차보험

최근 10년간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추이는 가장 높았던 FY1994 91.2% 이후 점차 낮아져서 FY1997 64.1%, FY1998 61.6%로 저점에 이르렀으며, FY1999 다시 상승 72.5%에서 소폭 하락하다가, FY2003 76.5%로 다시 높아져 손해보험산업의 수익성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합산비율의 경우 FY1998까지 5개년 평균 102.0%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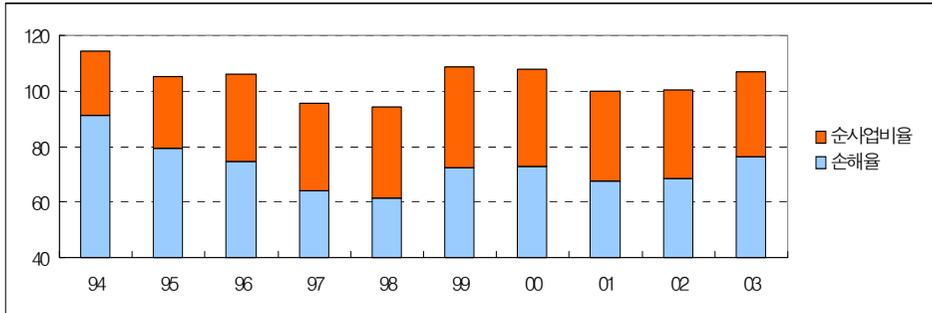
FY1999 이후 5개년 평균 104.4%로 악화하였는 바, 이는 손해율보다는 사업비율의 상승에 따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 사업비율의 경우 FY1998까지 5개년 평균 29.3%에서 FY1999 이후 5개년 평균은 33.0%로 무려 3.7%(P)나 높아져 업계의 모집경쟁이 더없이 격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제 불황에 따른 운행량의 감소(FY1997~1998)와 월드컵 등 국제스포츠 개최 관련 계도 및 교통법규 강화(FY2002), 가격자유화로 모집경쟁 심화 및 보험료를 낮추는 각종 특약(1인 한정특약, 부부한정운전특약)상품의 일반화로 인한 건당보험료의 인하 요인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영업손익 변동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표 II-11> 자동차보험 영업손익 변동 추이

(단위 : 10억원, %)

구 분	1994 ~ 1998						1999 ~ 2003						10개년 평균
	1994	1995	1996	1997	1998	평균	1999	2000	2001	2002	2003	평균	
경과보험료	3,619	4,392	5,321	5,798	5,084	48,430	4,778	5,360	6,330	6,865	6,478	5,962	5,402
발생손해액	3,300	3,493	3,957	3,719	3,134	3,520	3,462	3,904	4,276	4,692	4,957	4,258	3,889
손해율	91.2	79.5	74.4	64.1	61.6	72.7	72.5	72.8	67.6	68.3	76.5	71.4	72.0
순사업비	838	1,126	1,670	1,821	1,650	1,421	1,719	1,881	2,050	2,200	1,984	1,967	1,694
순사업비율	23.2	25.6	31.4	31.4	32.5	29.3	36.0	35.1	32.4	32.0	30.6	33.0	31.4
보험영업이익	-519	-227	-306	2,580	300	-99	-403	-426	3	-27	-463	-263	-181
합산비율	114.3	105.2	105.7	95.6	94.1	102.0	108.4	107.9	100.0	100.4	107.1	104.4	103.3

<그림 II-6> 자동차보험 영업손익 변동 추이



3) 장기보험

최근 10년간 장기보험의 합산비율은 보장성 중심의 상품 판매전략 및 예정사업비율 인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결과 최근 2개년의 합산비율은 105% 수준으로 이자비용(업계 평균 부리율 FY2002 약 7.2%, FY2003 약 6.2% 수준)이 발생손해액 중립금 증가 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면 약 1.6% ~ 2.0% 정도의 보험 영업이익을 실현하는 흑자구조로 전환되었다.

위험발생손해액은 상품판매전략이 저축성에서 보장성 중심으로 전환한 FY1999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위험보험료 대비 손해율이 70% 수준으로 30% 정도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FY1998의 경우, 기존 적립금 계정에 있던 실효해지 적립금이 지급준비금 계정으로 변경되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증가현상이다.

만기환급금의 경우 IMF 외환위기 이전 판매된 저축성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한 FY1999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보험료 적립금에 기 적립된 부분이 환급되는 것으로 고금리 적립금의 감소로 손해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표 II-12> 장기보험 영업손익 변동 추이

(단위 : 10억원, %)

구 분	1994 ~ 1998						1999 ~ 2003						10개년 평균
	1994	1995	1996	1997	1998	평균	1999	2000	2001	2002	2003	평균	
경과보험료	2,486	3,700	5,105	7,092	6,537	4,984	6,395	7,212	7,554	8,318	8,024	7,501	6,242
발생손해액	2,269	3,300	4,509	6,578	6,233	4,578	6,071	6,722	6,598	7,045	6,793	6,646	5,612
위험발생	920	1,307	2,082	2,764	2,496	641	409	675	575	739	844	648	645
만기환급금	516	693	968	1,072	1,197	889	1,802	2,812	2,216	2,151	2,320	2,260	1,575
해약환급금	1,076	862	1,174	3,080	3,658	1,970	2,623	2,375	2,128	2,304	2,249	2,336	2,153
적립금증가	5,848	1,614	2,160	2,150	-1,119	1,078	1,237	860	1,680	1,851	1,381	1,402	1,240
손해율	91.2	89.2	88.3	92.8	95.4	91.8	94.9	93.2	87.4	84.7	84.7	88.6	89.9
순사업비	529	706	1,130	1,354	1,053	955	1,292	1,392	1,589	1,738	1,572	1,517	1,236
순사업비율	21.3	19.1	22.1	19.1	16.1	19.2	20.2	19.3	21.0	20.9	19.6	20.2	19.8
보험영업이익	-3,12	-306	-535	-841	-749	-548	-968	-902	-633	-464	-341	-662	-605
합산비율	112.5	108.3	110.5	111.9	111.5	111.0	115.1	112.5	108.4	105.6	104.2	108.8	109.7

해약환급금은 IMF 외환위기 기간의 해약규모를 제외할 경우 전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장기보험 시장규모 증대에 따른 자연증가율 수준으로 판단된다.

적립금 증가액은 IMF 외환위기 이후 보장성 중심의 상품판매전략과 예정사업비율 인상효과에 의해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